

4. 내무국 소관

가. 경비별 세출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 경비별(세목)	'96 예산안		'95 예산액		증 △ 감	
	금 액	구성비	금 액	구성비	금 액	%
계	9,442,698	100	11,270,572	100	△1,827,874	△16.2
인 건 비 (100)	935,802	9.9	825,617	7.3	110,185	13.3
물 건 비 (200)	3,826,019	40.5	3,802,490	33.8	23,529	0.6
이 전 경 비 (300)	4,529,882	48.0	3,851,126	34.2	678,756	17.6
자 본 지 출 (400)	150,995	1.6	2,278,339	20.2	△2,127,344	△93.4
융자 · 출자금 (500)			13,000	0.1	△13,000	△100
보 전 재 원 (600)						
내 부 거 래 (700)			500,000	4.4	△500,000	△100
예비비 및 기타 (800)						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

┌ 시 전 체 : 583,489,000천원
 └ 내 무 국 : 9,442,698천원 (1.6%)

나. 검토의견

- 96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6.2%가 감소한 94억 4,260만원으로써 시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.6%를 차지하고 있음. (113쪽)
- 경비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
 - 인건비에 9억 3,580만원(9.9%)과
 - 물건비에 38억 2,600만원(40.5%)
 - 이전경비에 45억 2,980만원(48.0%)
 - 자본지출에 1억 5,090만원(1.6%)이 계상되었음.

(첫째)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 1,000만원이 증액된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및 체수당, 일용인부임 단가인상

에 따라 청원경찰 28명, 영양사, 취사인부 8명등 일용인부임 26명분의 인상분을 계상된 것이며, 명예퇴직수당에서 1억원이 계상된데 따른 것임.

(둘째)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특수활동비, 업무추진비, 복리후생비, 여비, 연구개발비등으로 금년 수준에서 계상되었음.

- 일반운영비에서는 내년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따라 선거관리 운영비가 3,240만원이 계상되었고, 전체적으로 세항이 통합된 96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 수준에서 계상되었다고 봄.
- 일반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에서는 직급보조비와 청원경찰 교통비, 명절휴가비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음.

(셋째) 이전경비는 보상금과 출연금, 민간경상 보조금,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등으로써 금년 당초 세출예산 대비 17.6%가 증가하였음.

주요내용으로는

- 먼저 보상금에서 노부모 효도관광 보상금이 1,000만원 신규 계상되었고 (121쪽)
- 퇴직공무원 위로 시상금품 등에서 2,860만원, 공무원시상등 포상금에서 6,930만원, 연금부담금 등에서 32억 3,790만원으로 5억 9,3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(135쪽)
- 출연금에서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대부 부담금이 6억 5,800만원이 계상되어 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(137쪽)
- 민간이전비에서는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재해 보상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(136쪽)

민간경상보조금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비로 3,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음. (139쪽)

- 한편 바르게살기운동과 새마을단체 사업비지원 경상보조금에서는 금년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8,59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다고 봄. (159쪽)

(넷째) 자본지출은 시설비, 자치단체 자본이전, 자산취득비등이 계상되었는데, 금년도 대비 21억 2,700만원이 감액된 1억 5,090만원이 계상되었음.

- 감액요인으로는 금년도에는 4개 동시선거에 따른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 20억 3,98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계상된 데 기인된 것이며,
-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등이 일부 부서에 계상되었고, 민방위관리 시설비등에서 단말싸이렌 이설공사등에 4,900만원이 계상되는등 총 1억 5090만원이 편성되었음.

(끝으로) 내부거래에서는 금년도에는 적립금으로 공직자자녀 장학기금으로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, 내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하여 총 10억원의 기금을 적립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상 미계상되어 수혜대상자에게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사료됨.